5월20일은 협회 창립 27주년 되는 날

- 농가 권익보호와 양록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 -

1. 양록업의 선진화
2. 목장 경영의 내실화
3. 녹용 내수량의 국산화
4. 유통구조의 현대화
5. 가공이용의 과학화

이 다섯가지를 기본운영방침으로 삼고 1975년 5월20일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 받은 본회가 올 5월20일을 기점으로 만 27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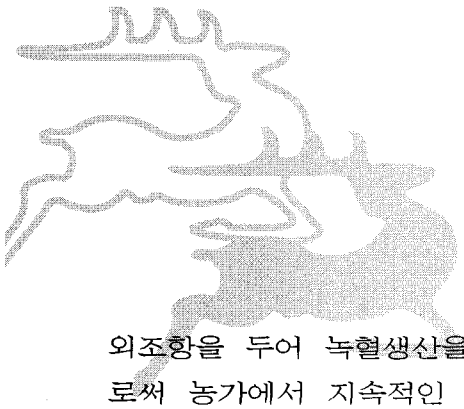
근대의 사슴역사를 살펴볼 때 문헌에 기록된 것으로는 1955년 대만으로부터 대만꽃사슴 20마리가 수입된 것이 최초다. 그 이전에도 사슴을 사육했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말로 전해 내려온 점을 감안하면 근대 양록산업의 시발점을 1955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국내 양록역사의 절반 이상을 양록협회가 함께해 왔다.

양록협회가 출범할 당시 국내 사육농가는 380여 농가, 사육두수는 3천6백여 마리였던 것이 현재는 1만5천여 농가가 약 25만여두의 사슴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돼 양록산업은 그 동안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산업이 성장할수록 생산자 단체인 본회의 중요성과 역할도 더욱 커졌다. 1975년 정부로부터 비영리 생산자 단체로 정식 인가를 받은 본회는 그 동안 양록농가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1987년부터는 회보발행을 시작, 각종 사육기술 및 유통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사슴거래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슴거래 과정에서의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월간으로 매월 발행되고 있다.

1990년에는 동물보호법 제정시 녹혈판매를 동물학대로 간주하려 하였으나 본회가 정당한 생산행위로 적극 주장, 예



외조항을 두어 녹혈생산을 합법화함으로써 농가에서 지속적인 녹혈 판매를 가능토록 했음은 물론, 언론의 무책임한 녹혈 세균감염 보도에 강력대응, 국회 보사위에서 허위보도임을 규명토록 함으로써 양록인 권익을 보호했으며,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히 1993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녹용을 축산물로 정식 등재토록 했으며, 녹용의 단순세척, 절단, 건조는 의약품 제조가 아닌 축산물 가공과정의 일부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내 국내농가의 자유로운 녹용생산 및 판매활동이 가능토록 하기도 했다. 더불어 10%의 특별소비세 부과를 1994년 폐지토록 함으로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허용 요구에 전국 2천여 양록농가가 서울로 집결,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치기도 했으며 그 동안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슴, 녹용 등을 보상금과 더불어 도태장려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농가권리를 확보토록 했다.

이 외에도 지난 27년이란 역사동안 본회는 농가의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중심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양록인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27년 동안 협회의 수장도 8명이 자리를 오고갔다.

초대부터 6대까지 회장직을 수행한 이남용 회장을 비롯, 6~7대 박용만, 8대 허 빈, 9대 허만기, 10대 안정식, 11~12대 이덕신, 13~14대 최창호 회장을 거쳐 현 김은성 회장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본회 김은성 회장은 창립 27주년을 맞아 "지난 27년간 협회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날의 협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협회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본인을 비롯, 전국의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양록산업이 더욱 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각오를 새로이 했다.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양록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든 양록인의 힘이 하나로 뭉칠 때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협회원으로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지회 및 양록인, 양록업 관계자들은 본회의 창립 27주년을 기념코자 본회 회지 『한국양록』에 축하 광고를 접수,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국양록